

4/12/15

설교 제목: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눅 24:13-35

- (눅 24: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 (눅 24: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 (눅 24: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 (눅 24: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 (눅 24: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 (눅 24: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절관주** 요 19:25
- (눅 24: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 (눅 24: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눅 24: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절관주** 행 1:6
- (눅 24: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절관주** 마 28:8, 막 16:10, 눅 24:1
- (눅 24: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 (눅 24: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 (눅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눅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눅 24: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 (눅 24: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눅 24: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눅 24: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절관주** 눅 4:30

(눅 24: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눅 24: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눅 24: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절망과 슬픔에 잠겨 다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가 어디였는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성경 저자인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약 11.5km (60 스타디온 60*192m=11.5Km), 25 리 쯤 떨어진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흘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가던 길에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집에까지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그들은 여지껏 동행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는 차로는 6-7 분, 걸어서는 한 두시간 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슬펐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눅 24: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때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눅 24: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눅 24: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존경하여 따라 다니던 스승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데 대한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큰 능력이 있어 언젠가는 왕이 될 인물이다 생각했던 스승, 그 분 뒤에 줄만 잘 서면 이제
사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기회가 오면 세상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다고 내심
기뻐하고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송두리채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절망의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철썩같이 믿었던 스승이 그렇게 힘도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죽은데 대해 일종의 배신감
같은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따라 다니느라 세상 일에 손 놓고
있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소망을 잃어버린데 대한 슬픔 또한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제자는 이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고 슬픔 가운데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머리 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해는 누엿누엿 저가는데 석양을 향해 두 제자가 터벅터벅 걸어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두 제자는 석양을 바라보고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어느 유명한 문학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복선을
잘 이용했음에 감탄하곤 합니다.

성경의 저자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두 제자의 영도 그들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져
슬픈 빛인 석양을 향해 힘없이 걸어 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두 제자와 같이 불신과 절망 가운데 슬픔을 간직한 채, 지는 해를 향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냈던 세상에서의 기대와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려 절망의 슬픔을 품고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건강에 대한 기대도, 사업에 대한 기대도, 물질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져 버려 절망의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 말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석양을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간 우리는 두 제자가 어째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눅 24: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눅 24: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불행한 일을 당하면 눈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너무나도 큰 슬픔이 덮치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은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게 될 때에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계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디베랴 바닷가에 갔던 일곱 제자들도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눈이 가리워졌던 소경들이었습니다.

영국 성공회 사제였던 존 뉴톤이 쓴 찬송가 'Amazing Grace (나같은 죄인 살리신)'에도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blind. 우리들은 모두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 119: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욘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욘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두 제자는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듣지도 못했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지금 옆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고 디베라 바닷가에 갔던 일곱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귀가 어두웠던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3: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 13: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두 제자는 가슴이 굳어져서 주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게 될 때에는 가슴이 굳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옆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이나 감동이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손길까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기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점차적으로 영이 살아나게 되어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있던 두 제자가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지닌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눅 24: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눅 24: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눅 24: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석양을 향해서 슬프게 힘 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가 해돋이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쁨으로 힘차게 뛰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온 몸과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까지 되었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로 바뀌어졌고 슬픔을 지녔던 사람들이 기쁨을 지닌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1.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야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눅 24: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의 주님께서서는 못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불신과 절망에 쌓여있던 두 제자에게도, 불신과 의심에 쌓여있던 도마에게도, 배신과 좌절에 쌓여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말씀도 하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떡도 떼어서 먹여도 주십니다.

2.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셔야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눅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음도 들음에서 오고 구원도 들음에서 오고 변화도 들음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3.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떡을 떼어주셔야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 6: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떼어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살, 즉 깊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와 지옥을 이기게 됩니다.

4. 우리들은 주님을 강권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집에 영접해야 합니다.

(눅 24: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눅 24: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을 강권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에 모시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제자가 강권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께서 그대로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내리는 결단을 존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신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슬픈 빛을 띠고 석양을 향해 힘 없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서는 못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살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듣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양을 향하던 발걸음이 해돋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믿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 몸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